

# 전문성 높일 개방형 관장제 도입 '가닥' 예술단원 평정 놓고 TF팀·노조 이견 <評定>

## 광주문화예술회관 개혁방안 윤곽

광주문화예술회관 혁신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광주시는 지난 7월 구성된 광주문화예술회관 혁신 TF팀이 마련한 안과 광주시립예술단체 노조 의견 등을 취합, 개방형 관장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마련중이다. 시는 이 안을 중심으로 좀 더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말 열리는 정기의회에 예산 반영과 관계 규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개방형 관장제 도입=TF팀이 구성되면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개방형 관장제는 도입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수년 전부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방형 관장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중 공무원이 관장직을 맡는 곳은 광주시 뿐이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의 경우 현재는 공무원이 관장을 맡고 있지만 지난 2011년 개방형으로 관장을 뽑은 적이 있으며 최근 공모 역시 공무원과 개방형 모두 열어놓고 진행됐었다.

공무원 출신 관장의 경우 예산 확보나 시외의 관계 면에서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회관의 효율적 경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개방형 관장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광주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정년을 앞둔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자리 지키기'에 급급했고, 평균 재임 기간 1년 3개월에 6개월 근무하고 떠난 사람도 3명에 달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했었다.

반면 노조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시립예술단을 시의 직속 체계로 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예술감독 임용=TF팀은 공개 모집 원칙과 함께 인력풀에 의한 타 지역 전문가 5명(당연직 포함 7명)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전형위원회로는 당연직인 행정부시장과 시의회 의원과 전문가 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한명은 노조가 추천하는 3명의 후보중에서 선정해왔다.

노조측에서는 예술감독 위촉 시 단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장하며 인사 임용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천시향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전문가, 음악 관련 단체, 단원들에게 10명을 추천받아 이중 3명을 선정, 객원 지휘를 진행한 후 상임지휘자를 뽑았다. 전문가 평가, 관객 반응, 단원 평가 등을 종합한 결과였다. 일단 시측은 을 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 예술감독 임용

### 타 지역 전문가 5명

### 전형위원회 구성 제안

### 예술단 통합 사무국 신설 인프라 개선 38억 반영

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교향악단 지휘자 임용부터 이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의 국극단 등 예술감독을 임용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단원들의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할 필요는 있지만 단원들이 지나치게 감독 선정에 개입할 경우 불거질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단원들이 실력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감독을 뽑거나 단원들간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분란 등의 소지가 있으며 예술감독 역시 단원들 눈치 보기에 급급, 소신껏 단체를 운영할 수 없는 점이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예술단원 평정=시립예술단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시민들이 원하는 건 능력 있는 예술감독 선임과 함께 뛰어난 기량의 예술단원을 확보, 수준높은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외부에서는 강력한 평

정을 통한 실력 향상을 요구해왔다.

TF팀은 인력풀에 의한 전형위원회 구성과 평정 매뉴얼에 의한 5등급 실기 평정 강화를 내놓았다. 특히 현재 변별성이 거의 없는 기존의 평가 방법 대신, 상대평가 등을 통해 실제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평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노조는 감독이 부여하는 점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몇몇 사례에서 보듯 감독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등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평정은 실기 70점과 근무평정 30점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감독이 공연참여도, 성실성을 기준으로 15점을 준다. 당초 20점이었지만 지난해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5점을 낮췄었다.

하지만 TF팀은 일부 감독의 사례를 들어, 더 배점을 낮출 경우 예술감독의 재량권이 축소돼 제대로 된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기 평정의 경우 단원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만큼 문화예술회관은 평정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7개 예술단을 아우르는 통합 사무국 설치의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단무주 순환 보직제는 장단점이 있어 단체별 특성을 고려하는 등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낙후된 회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공연장 음향 시설 보수 등 38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주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된 안은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며 좀 더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 밖 작가들이 묻고 광주 작가들이 답하다

## 대인예술시장 '미테-우그로' 조각 기획전

광주 밖 작가들이 묻고 광주 안 작가들이 대답한다. 대인예술시장 '미테-우그로'가 조각 기획전 '수신·답신(조각을 묻다)'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광주 지역 출신이지만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김도경, 장성훈 작가의 질문이 담긴 1부 전시(23일~11월8일)와 광주에서 활동하는 배수민, 백상욱, 신호윤, 이재덕 작가의 답변이 담긴 2부 전시(11월13~22일)로 나눠 진행된다.

작가들은 지난 6개월간 서로 메일을 주고받으며 자신 작업 소개, 작업 방향, 작가로서의 고민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작업을 발전시켜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

1부 '수신'전에 참여한 김도경 작가는 7개의 다른 형태를 지닌 박스 안에 그동안 자신이 작업해온 작품들을 가져다 놓음으로써 하나의 종합 선물 상자를 표현했다. 또 장성훈 작가는 닭의 목을 비트는 사람을 형상화하는 등 인간의 솔직한 모습과 사회의 어두운 면을 작품에 담았다.

2부 '답신'전의 배수민 작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 인사들의 초상화를 주제로 그들이 살아왔던 삶에 우리 자신을 투영시켰다. 백상욱 작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고무신 안의 다양한 표정으로 위트있게 표현했고 신호윤 작가는 종이로 소재로 사회 속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다뤘다. 이재덕 작가는 성숙함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성을 작품 주제로 삼았다.



장성훈 작 '닭의 목을 비트는 아티스트'

또한 2부에서는 작품 이외에도 그동안 작가들이 주고받았던 이메일 내용을 정리해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현재 젊은 작가들이 가진 생각과 고민 등을 공유할 수 있을 예정이다. 문의 010-6680-983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별고래와 함께, 발산마을 여행

### 미술 프로젝트 첫 작품 '별별잡기' 완성

발산마을에 고래가 나타났다.

광주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양동 발산마을(양3동 발산로 108번길 일대)에서 진행된 두번째 마을 미술 프로젝트 '별별잡기'의 첫 번째 작품이 완성됐다. 양재영 작가의 '별고래와 함께 매력발산! 발산마을여행' <사진>이다. 올해 개관한 공립 어린이집 인근 울퉁에 설치된 이 작품은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와 펭귄, 곰 등 친근한 동물캐릭터들이 마을을 여행하는 컨셉이다.

이 작품을 시작으로 광주의 전경을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 따고 곰 따고', '발산비밀의 정원', '희망탑사프로젝트'



등이 설치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강동호, 구현주, 박상현, 백상욱, 신호윤, 양재영, 이성용, 전주모, 최윤미 등 9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문의 070-7677-92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아리랑대축전 우수 작품 마지막 무대 'U리랑'

### 30·3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과 김미숙 뿌리한국무용단이 아리랑을 주제로 한 'U(우)리랑'을 두차례(30일 오후 7시30분, 31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무용극 'U(우)리랑'은 조주현 연출 '아리랑 새벽 아침' 제1장을 비롯해 모두 5장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평화의 땅에 소식을 전하는 소년 이야기를 모티브로 평화를 갈망했던 민족의 역사, 불의에 맞서 싸운 광주 역사를 아리랑으로 해석했다.

김미선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객원교수와 이희원 국립현대무용단 수석단원이 맡았으며, 김수영 외 40여 명의 무용수들이 참가했다. 'U(우)리랑'은 YOU의 'U',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광주 리 모양 'U'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광주문화재단이 무대를 마련한 이번 공연은 '2015 광주아리랑대축전 지역 우수 작품' 가운데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공연은 무료.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cf.or.kr/cms/)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jimin22328@hanmail.net), 또는 전화 접수 가능하다. 문의 공연전실팀 062-670-7943, 7929.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 가구 전문점 100% MADE IN ITALY

# 소파 식탁 보상판매

타사상품 포함 [www.hong79.com](http://www.hong79.com) ☎ 1899-0240 11월 28일까지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SINCE 1990